

백악관 연설문작성자의 비망록

레이건 연설문 代筆했던 페기 누년의 「내가 본 혁명」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으로 명성을 날렸던 페기 누년과 그의 아들.

로널드 레이건 전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여 이름을 날렸던 한 프리랜서 작가가 지난 10년간의 자기 활동을 되돌아본 책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페기 누년이라는 여성. 그녀가 쓴 책의 제목은 「내가 본 혁명」(What I Saw at the Revolution)이다.

레이건이 재임시 미국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페기 누년의 도전적이고 강력한 표현력 덕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녀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테드 소렌슨과 함께 백악관을 무대로 활동한 작가 가운데 가장 탁월한 필력을 갖춘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페기 누년은 한 인물이 가진 개성을 정확히 포착,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 1988년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녀는 무미건조한 데다가 말까지 약간 더듬는 부시 대통령후보를 차분하고 이지적인 인물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누년은 부시의 대통령 취임연설을 마지막으로 이 분야의 일을 그만두고, 1980년대 이후 썩어진 정치적 비망록 가운데 가장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책의 집필에 지금까지 몰두해왔다. 이 책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런 류의 회상록이 갖게 마련인 상투성과 자기도취를 탈피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점은 그녀 자신도 잘 의식하고 있었던 듯. 「대부분 남자들에 의해 썩어진 백악관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그 어리석은 작가들이 글썩 내 말을 만들었다'는 한탄을 늘어놓는다.」 그녀가 털어놓는 것은 사소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들이다. 그녀의 옷차림에 못마땅한 표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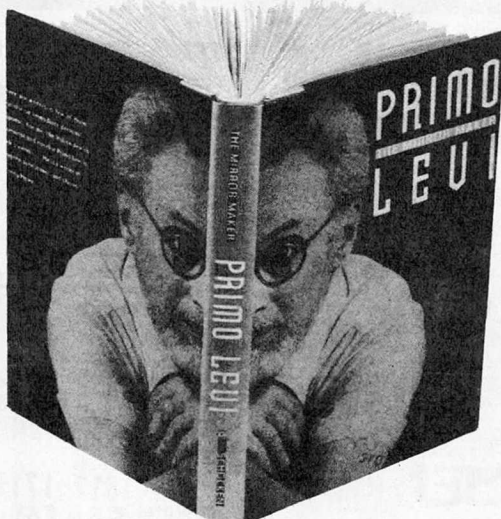
짓는 낸시 레이건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기둥 뒤로 숨는다든지, 그녀가 작성한 문안을 두고 백악관 보좌관들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다든지 하는 것들.

누년의 책은 이를 수 없었던 강렬한 사랑의 연대기로 읽힐 수 있다. 레이건 못지 않은 보수주의를 신조로 삼고 있는 그녀는 CBS에서 방송원고 작성자로 참여했다. 자기가 작성한 연설문이 커다란 성공을 거둘 때마다 그녀는 대통령이 가끔씩 던지는 칭찬의 말을 수줍은 소녀처럼 가슴깊이 새겼다. 33살의 나이로 처음 백악관에 들어 갔을 때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고 물어보는데 충격을 받았다. 뉴저지주에 있는 이름없는 한 야간대학을 졸업한 누년은 이것이 바로 동부의 명문대 출신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곧 적응했다. 책상 위에도 에즈라 파운드의 시집을 꽂아놓고 그녀가 쓴 글에 트집을 잡지 못해 안달인 하버드대 출신들의 기를 죽여놓았던 것. 훌륭한 대본은 그것을 제대로 소화해주는 배우가 있어야 빛을 보듯 페기 누년의 탁월한 글솜씨도 억양, 표정, 몸짓이 완벽한 3박자를 이룬 레이건 전대통령의 화려한 연기 덕분에 한층 부각됐을 가능성도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 무대에서 성실성과 진지함 대신에 심리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계산이 점차 중시되고 있는 현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자살한 이탈리아 작가의 작품집

몇해 전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화학자인 프리모 레비의 단편과 에세이를 모은 작품집이 나왔다. 이 책의 제목은 「거울 만드는 사람」(The Mirror Maker).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에서 당했던 쓰라린 경험을 일관된 테마로 삼아 글을 써온 작가로 유명하다. 가해자들의 잔악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여느 작가들과는 달리 가해자가 던져주는 조그만 권력을 놓고 피해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형태를 섬찟할 정도로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한편 과학자로서 레비는 자연이 보여주는 놀라운 질서와 오묘한 조화에 매료당하기도 하는데, 그의 눈에는 부정형의 액체에서 고체의 실을 자아내는 '거미'는 신비 그 자체. 「거울 만드는 사람」이라는 단편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신비로운 거울을 만드는데, 이 거울은 대상의 물리적인 반영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비치는 상을 비춘다. 한 소녀의 연정이 주인공을 아폴로신으로 거울속에 나타나게 한다는 짙막한 이야기 속에 작가의 회망적인 세계상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영혼에 무한한 호기심을 가졌던 이 재능있는 작가는 3년전 67세의 나이로 자살을 결행한다. 그는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이탈리아의 작가 프리모 레비의 작품집.

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자신의 책속에서 레비는 자기처럼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장 아메리의 말을 여러차례 인용한다. 「얼굴에 가해지는 첫번째 구타로 금이 가고, 계속되는 고문을 통해 무너져내리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는 결코 두번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아메리는 1978년에 자살한 프랑스의 철학자. 아무런 위안없이 세계의 폭력과 비참함을 건디기에 한 인간의 심장은 너무나 가녀린 것일지도 모른다.

논란 일으킨 스페인의 군부 비판서

군부에 강력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은 오늘날 스페인에서 더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의 스페인」(España Indetensa)을 쓴 마르티네즈 잉글레스는 2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그 이유는 그가 뛰어난 전략가로 촉망받는 현역직업군인이기 때문. 작년 12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 군사법정에서 재판부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의 책이 군의 규율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무방비 상태의 스페인」에서 작가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18세의 젊은이들에 대한 1년 동안의 군복무제이다. 마르티네즈는 이를 완전한 시간과 돈의 낭비이며, 그보다는 소수의 직업 정예군인을 두고 이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982년 사회당 정부가 들어선 후 나토 내의 다른 동맹국 못지 않은 첨단장비를 공군과 해군이 갖추 수 있었던 반면, 육군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 그의 적잖은 불만이기도 하다. 또 1981년 쿠데타 기도 이후 군은 아직까지 그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 왜냐하면 극소수의 군인들만이 그 군사적인 모험에 가담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군인제를 들고 나오는 주장의 이면에는 한국방장관이며 확고한 사회주의자인 나르시스 세라에 대한 반감도 있으리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기도 하다. 마르티네즈와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이번 조치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여론의 향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